



제판업계 선진기술 도입 앞장서

FREE-PRESS SYSTEM 도입 정확성 우수

모든 일에 있어 첫 걸음을 어떻게 디디는가가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켜가는 진리일 것이다. 포장업계에 있어 포장지 생산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 제판업계의 기술력 확보에 앞장서고 있는 김성원 사장

국내포장업은 많은 분야에서 일본에 비해 기술력이 뒤져있는 것이 사실인데 제판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본의 경우 10년전 필름제판분야에서 디지털화되었던 데 비해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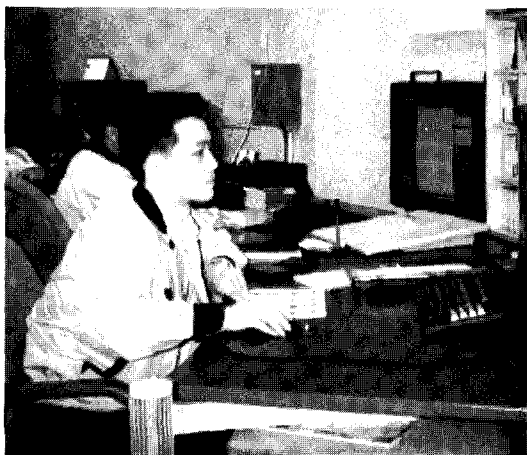
제판산업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바이지만 그 중요성만큼 올바른 가격선의 책정이나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경제불황도 물론이거니와 업계의 영세성과 기술력의 부족 등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첨단제판기술력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난 5월 16일 확장 개업식을 가진 성명시스템은 롯데알미늄 제판과에 입사하면서 필름제판과 인연을 맺은 김성원 사장이 12년째 이끌며 제판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업체이다.

라의 경우는 1994년 당시 성명시스템의 전신인 성명기획이 13억원을 투자해 동판제작과정에 데이터 전송방식을 채택해 디스켓으로 포맷을 입력시키면 레이저로 제작이 가능한 디지털화된 FREE-PRESS SYSTEM을 도입한 것이 최초의 일이다.

국내에는 30~40여개의 제판업체가 존재하는데 이중 성명시스템 외에 1~2업체만이 FREE-PRESS SYSTEM을 갖추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제판방식은 패키지디자이너의 도안이 제판업체로 넘어오면 카메라로 이 원고를



▲ 최신장비로 정밀한 수정작업이 가능하다.

촬영하고 이 네가를 가지고 수작업을 통해 색상별 분판작업을 실시한다.

이후 동판 들레만큼의 REPEAT 작업을 해 하리꼬미작업을 하고 수작업으로 니게작업을 마친 후 역시 수작업으로 색깔별로 필름을 출력하는 순이었다.

이에 비해 성명시스템이 도입한 FREE-PRESS SYSTEM은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원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디스켓에 담아 컬러프린트지와 함께 수령해 이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 색상별 분판작업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수작업과 비교한 이점이 있다면 컴퓨터 화면상의 확대를 통해 예민한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어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컬러수정과 니게 작업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효율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인쇄시 핀트의 로스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고 여기까지의 과정을 레인보우 칼라 출력기를 통해 시안을 직접 확인해 정확한 작업이 가능하다. FREE-PRESS SYSTEM은 컴퓨터 작업으로 REPEAT가 수월하고 정교한 것이 특징이고 조각방식을 선택해 REPEAT작업이 불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디스켓은 파일에 작업한 내용을 모두



▶ 성명시스템에서 병행하고있는 수작업현장



◀ 새롭게 보완된 편집용 매킨토시 장비

답으면 레이저로 조각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성명시스템의 모든 작업은 광케이블로 연결되어 시스템 내에서 모든 작업의 결과물을 전송할 수 있으며 디자이너들이 작업한 슬라이드 자체의 결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사이텍스 시스템과 워크스테이션 4대, 편집용 매킨토시 3대, 원색분해 드럼 스캐너, 시스템 전용 스캐너 등의 기존 설비에 이번 확장 개업 시 읍셋전용 매킨토시 3대를 더 갖추고 본격적인 첨단제판기술을 국내에 현실화시키고 있는 성명시스템의 김 사장은 “패키지디자인과의 접촉을 통해 포장지 생산의 첫 단계인 제판분야는 그 중요성에 비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성명시스템의 경우에도 적자의 폭이 큰 편이지만 장기적인 안목

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통한 업계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바라보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라면서 업계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다.

현재 식품회사의 제판을 하고 있는 성명시스템은 읍셋과 그라비아를 병행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잡지인쇄까지도 그라비아로 이루어질 만큼 그라비아인쇄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부수가 적어 불가능하다고 한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해 우수한 재질로 인쇄가 가능한 그라비아인쇄의 보편화를 위해 관련업계 모두가 기술력 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들어 제판업체들이 FREE-PRESS SYSTEM을 도입하고 있는데 김 사장은 일단 컴퓨터가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컴퓨터 역시도 인간이

만든 기계이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컴퓨터를 다루는 오퍼레이터의 기술력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로 축적된 업체의 노하우라는 것이다. 또한 김 사장은 앞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기초적인 발판을 갖추는 작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업계의 제판업에 투자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명시스템은 사장 총괄하에 모든 부서장 및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인원을 충원할 때 가장 우선적인 기준을 성실성과 일에 대한 강한 의욕에 둔다는 김 사장은 "기술력은 입사 후 지도 및 노력 등 주·객관적인 개발에 의해 증진시킬 수 있지만 성실성과 의욕은 그 사람 스스로가 갖춘 자질이다"라며 인성을 중시하는 성명시스템의 사풍을 설

명했다.

현재 한국포장협회의 회원사이기도 한 성명시스템은 많은 제판업체들이 협회에 가입해 선의의 경쟁 속에서 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원만한 기술 교류를 통해 우물안 개구리식의 국내 경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업계의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이지만 직원의 복리후생에 할 수 있는만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통한 합리적인 경영을 이루고 있는 성명시스템은 오퍼레이터의 기술력과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장의 어려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제판업계의 발전을 위한 업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윤지은 기자



◀ 현재 2대를 갖추고 있는 원색분해드럼스캐너